



한국고분자학회
32대 회장 김정안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고분자학회를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푸른 양(청양띠)의 해인 을미년입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을미년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60년 주기로 볼 때, 국내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뚫고 세 번째 도약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냐고도 합니다. 특히, 2015년은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방송에서 보아온 광고 내용은 70년간 노력해온 국민들을 존경하며, 100년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30년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합니다. 이제 한국고분자학회도 창립 40년이 되어 진정한 장년의 세대로 넘어가려 합니다. 설립 당시 7명의 회원에서 지금은 3,5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매머드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한국 석유화학 발전(세계 6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온 학회입니다. 최근 과학기술계 화두는 “융합” 기술이며, 이에 6대 기술인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 기술(ET), 문화콘텐츠 기술(CT), 우주 기술(ST)을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고분자산업이 최적이라는 사실은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나왔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자들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를 달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옵고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30년의 청년세대를 지나 40년이라는 장년의 성숙된 학회로 성장과 발전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 2016년은 학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걸맞는 행사로 국제적으로 유명 과학수사들과의 교류의 장을 펼쳐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올해 학회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일본 및 한국-대만학회와의 교류 사업 및 국제 학술대회 유치를 통한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세안고분자연합회를 통한 아시아의 고분자 분야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 학회장님들이 펼쳐온 여러 일들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회장 출마의 변으로 말씀드린 모든 회원님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학회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걸맞게 “펠로우”제도 정비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국고분자학회가 밖으로 열려있는 학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석부회장인 포항공대 조길원 교수, 재무위원장 겸 부회장으로 LG기술원장님이신 유진영 박사, 부회장 겸 교육위원장 겸 여성과학자 대표님으로 연세대 김은경 교수, 부회장 겸 학술위원장으로 서울대 차국현 교수, 지역대표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재석 교수, 연구계 대표님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창진 박사님을 부회장으로 모시고, 감사님으로 KIST 김재경 박사와 고려대 윤호규 교수, 성균관대 김덕준 교수를 전무이사, 재무이사로 단국대 조준한 교수를 비롯하여, 여러 운영 이사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학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자문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학회를 위해 힘쓰는 사무직원들의 협조로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하고, 소통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약의 기운이 솟는 희망찬 새해에 자랑스러운 학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김정안